



## 해고자 원직복직 산자부 천막농성 22일차 / 피켓 시위 46일차



사진설명(왼쪽부터)

- ▲지지방문 조합원
- ▲해고자 피켓 시위
- ▲공공부문해고동지 연대
- ▲공공운수노조 국장 연대
- ▲지지방문 지부장

산자부 천막농성장 피켓 시위 해고동지의 넥워머가 쌀쌀해지는 날씨를 보여준다. 지난 태풍 때 산자부 해고자 천막농성 사진을 보고 마음 쓰여 도저히 안가볼 수 없다는 조합원은 그 마음만큼이나 달달한 빵을 넉넉히 들고 왔다. 또 같은 공공운수노조 소속 해고자들의 연대방문, 공공운수노조의 연대방문, 그리고 발전노조 산하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더 뜨거워지는 투쟁과 연대의 열기를 모아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하자. 투쟁!

## 11월 9일(토),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1970년 11월 13일, 스물한 살의 노동자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자신이 살던 사회에서 느꼈던 고통과 절규는 바로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받는 고통이었고, 절규였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외쳤던 절규는 인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수많은 민중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전태일은 민주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어두운 시대, 자본의 억압에 맞서 몸을 불살랐습니다. 현실을 타하기보다 행동으로 저항했습니다. 전태일정신은 불의에 대한 저항과 투쟁정신인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열사가 분신한 11월 13일을 전후 해 **열사 정신계승과 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하여 매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2019년에는 11월 9일(토) 개최합니다. 참석하여 노동자의 힘을 함께 합시다.

2020년, 전태일 50주기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세상을 바꾼 희망의 불꽃, 태일이'가 상영예정입니다. 전태일 관련 '전태일 평전' 뿐 아니라 어린이가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부에서도 전태일열사 49주기를 맞아 열사에 대해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 ① 전태일 평전 (조영래 지음)      ②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DVD - 1995년 개봉)
  - ③ 전태일 거리 (청계천 6가에 전태일 다리가 있고, 전태일 분신장소에 흉상이 세워져 있다.)
  - ④ 애니메이션 <태일이> 제작 범국민 모금운동 - 국민은행 807501-04-236126(전태일재단)
- \* 1만원 이상 후원하시면 앤딩크레딧에 이름이 소개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1. 가족돌봄휴가 신설(시행 : 2020.1.1.)

| 구 분  | 현행                      | 개정                               |
|------|-------------------------|----------------------------------|
| 제 도  | 가족돌봄휴직제도만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추가 신설            |
| 사 유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 현행 휴직사유 + 자녀 양육 사유 추가            |
| 가족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br>배우자의 부모 | 현행 가족 + 조부모, 손자녀 추가              |
| 사용방법 | 연간 90일(1회 30일 이상)       | 연간 90일(가족돌봄휴가 10일은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 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시행 : 2020.1.1.)

| 구 분  | 주요 내용                                                                                   |
|------|-----------------------------------------------------------------------------------------|
| 청구사유 | ① 가족돌봄, ② 본인 질병/사고, ③ 55세 이상 은퇴준비, ④ 학업기간                                               |
| 사용기간 | 1년(단, 2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학업은 연장 없음                                                       |
| 단축시간 |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 권리보호 | ①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② 단축 종료 후 동일 업무 복귀 의무<br>③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④ 연장근로 요구금지<br>⑤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

## ILO 선임정책위원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 문제 심각' 지적

지난 10월 18일 ILO 선임정책 전문위원이 내방하여,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발전노조 박태환위원장은 발전산업의 필수유지업무의 과도한 유지율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고, ILO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권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발전현장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 유지할 업무를 완전 뛰어넘어, 파업권을 제약할 도구로 쓰여 지고 있는 현실을 알렸다.

ILO 팀 드 메이어 위원은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심각한 문제"라며 "항공, 궤도분야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적용에서 적용제외"되어야 하며, "에너지 등 타 공공부문의 파업권도 보장되어야"함을 분명히 했다.



▲ 10/18(금) 진행된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ILO 선임정책전문위원 간담회(맨 왼쪽이 발전노조위원장)

## 이용석의 희망, 김용균의 꿈, 우리의 결의 비정규직 철폐!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10/26)



2003년 10월 26일 이용석 열사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한 그 자리에 모여 열사의 뜻을 기리며 투쟁을 결의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함께합니다. **2019년 10월 26일(토) 13시, 종묘공원 앞**

**김용균재단  
출 범 식**

**10/26(토),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마홀  
(15시 30분 창립총회, 16시 30분 출범대회)**